



민족 고유명절 한가위 맞아 전남 곳곳서 전통놀이 한마당

국악·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 펼쳐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남도내 곳곳에서 납도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세시풍속놀이와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연휴기간동안 도내 138개 지역에서 세시풍속놀이를 비롯해 노인 경로잔치와 체육대회·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추석연휴인 21~23일 널뛰기와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도자기 빚기·한지공예·다도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나주 시민들로 구성된 나주목(牧)문화재단은 오는 22일 금성관 일원에서 ▲귀성객 및 관광객을 위한 수문근 근무 재현 ▲국악·판소리 공연 ▲삼현육각 연주 등 역사재현 프로그램과 민속놀이장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월출산 기린재에 야외공연장에서 월출산의 만월(滿月)을 배경으

로 '달맞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한가위 공연은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군민 화합의 큰 잔치로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야' 공연과 영암출신 가수 김정희 씨를 비롯해 조항조·박강수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나주 동강면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오는 10월 한국민속예술축제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봉추들노래 보존회의 들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구례군 구례읍 신촌마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잔수농악 판굿을 펼친다.

(사)우도농악 담양보존회는 오는 26일 오후 4~6시 관방제림에서 우도농악과 설장구를 선보인다.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새마을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마을 광장에서 '봉안리 은행나무 당산제'를 지낸다.

천연기념물 제 482호로 지정된

봉안리 은행나무는 한일합병과 8·15해방, 한국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마다 울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10월 5일에는 고흥소록도원생자치회 주관으로 소록도 중앙공원에서 소록도 주민을 위한 민속놀이와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이다.

(사) 무안 일로품바 보존회는 오는 26~27일 무안 송담문화예술회관에서 '제 5회 전국 품바명인 왕중왕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진도 운림산방에서 실시하는 '남도예술은행 토요일경매'는 추석을 맞아 한국화와 문인화, 서예 등 소장품 액자그림을 할인해 경매하며 추석 관련 퀴즈행사를 열고 흥주, 머그컵 등 지역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관암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추석맞이 세시풍속놀이와 문화행사를 통해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놀이를 보존 계승 및 재연행사를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보다 따뜻한 정과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내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뻐요”

19일 전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을 찾은 어린이들이 송편을 직접 만들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한가위를 맞아 18~19일 전통혼례식을 비롯해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19일 전남도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을 찾은 어린이들이 송편을 직접 만들고 있다. 농업박물관은 한가위를 맞아 18~19일 전통혼례식을 비롯해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전남도 농업박물관 제공>

담양 남면 '면민과의 대화'

'밀착행정' 주민에 큰 호응

면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당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밀착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일 담양군 남면사무소(면장 이경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지곡마을을 시작으로 각 마을을 순회하며 모정과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면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이번 좌담회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현장에서 면장이 직접 찾아가 군이나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 면장은 지난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887호선의 가압마을 교량사업과 응벽공사를 해결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때아닌 오징어 풍어, 어민들 '활짝'

예년보다 한달 늦어져

여름 내내 계속된 불볕더위에 도 불구하고 바다수온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기온으로 오징어를 잡지 못해 시름에 잠겼던 신안·진도지역 어민들이 뒤늦게 활짝 웃고 있다.

신안 흑산도 해역에 최근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물 반, 오징어 반'인데다가 가격도 좋아 그동안의 어획부진을 만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진도수협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신안 흑산도 해역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50여 척의 어선이 출어해 하루 평균 1만5000여 상자(1상자 20마리)를 잡는 풍어가 이어지고 있다.

흑산지점에는 나흘전부터 하루 평균 8000~9000상자가 위판돼 오징어 위판을 시작한 이후 최고 어획량을 기록할 정도이다. 진도 서방 위판장에서 하루 4000~5000 상자가 위판될 정도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 위판 가격 기준으로 상자당 2만 3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1000~2000원 정도 높다.

흑산지점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출어에 나섰지만, 수온이 낮아 오징어를 제대로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어민들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은 최근 오징어떼가 나타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이달 말까지 조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강진 '녹색보은 숲' 조성사업 내달 착수

강진군은 오는 10월부터 강진읍 교촌리 일대에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녹색보은(報恩)숲'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강진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6.5%를 초과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 산림복지팀은 지난 2009년 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참가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주변에 노인대학과 노인전문요양원·행복울타리(무료 임대주택) 등 노인 전문

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진의 명산인 보은산 등 주변의 녹지대와 연계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부지면적 1만9804㎡ 일대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푸른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힐체어 산책로'(길이 190m·폭 1.8m)를 조성하고 상록수 단지과 허브정원·간이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휴게기능 강화와 함께 인근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녹색 복지인프라'가 구축돼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영암 '산수 뮤지컬' 출발부터 먹구름

의회 승인없이 부지매입·업체능력 검증 안돼

민노당 "복지·교육·농업예산 감소... 철화해야"

영암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산수(山水) 뮤지컬'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영암군의회 승인없이 부지를 샀고 선정된 공연부문 업체도 재정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익성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영암군위원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수 뮤지컬 사업이 진행되면 복지·교육·농업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공연부문을 맡고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업체도

인터넷상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로 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재정력을 갖췄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연 수익금의 배분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암군의회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과 8월 공연장이 들어설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대체 편입을 사들였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매입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산수 뮤지컬은 월출산 국립공원 사

자저수지에 공연장을 조성하고 뮤지컬을 공연해 관광수익 및 부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억·군비 150억·민간자본 190억 등 모두 490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오는 2012년 첫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뮤지컬 '영암 아리랑'은 중국 장메모 감독의 '인상(印象) 시리즈'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의회 승인없이 대체부지 매입비를 집행한 것은 동일사업 토지매입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5주년 기념식

장성군은 지난 16일 4층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장성군 제공>

한국전쟁 상흔 '완도철교' 영상으로 남긴다

한국전쟁 상흔과 연륙의 기쁨을 안겨준 옛 완도대교(철교)가 조형물 보존대신 영상 기록물로 영구 보존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완도대교를 조형물로 보존시 이설비만 35억원,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유지 관리비 등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 영상 기록물로 남기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완도를 물로 연결한 첫 교량이자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완도대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부 항토사학자와 주민들 역시 완도대교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며 조형물 보존을 주장했다.

군은 철교 일부뿐이라도 보존해 후손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경간 63m를 군외면 원동리 IC 인근 공원으로 옮겨 역사적 조형물로 보존하고자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전쟁기념재단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 건의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됐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풍성한 추석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모든 분들 가슴마다 정겨운 추석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 오십시오.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